

고등학교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통일교육원

이 책은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참고자료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 1

1.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 3
 - (1)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 3
 - (2) 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까? / 6
2. 왜 통일이 필요할까? / 9
 - (1)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 9
 -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 10
 - (3) 분단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 12
 - (4) 문화·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 13
 - (5)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 14
3.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 15
 - (1) 냉전 시대, 남북한은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 / 15
 - (2) 남북 정상 회담과 그 의미는? / 19
 - (3) 남북한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 21
 - (4)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 23

II

북한 사람들의 삶 / 31

1.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볼까? / 33
 - (1)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 33
 - (2) 북한은 어떤 곳인가? / 34
 - (3)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기관은? / 37
2.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39
 -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주로 입을까? / 39
 - (2) 북한 사람들은 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 41
 - (3) 북한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 43
 - (4) 북한의 주거생활은 어떠한가? / 44
3. 가정생활은 어떠할까? / 46
 - (1) 결혼에서 선호하는 신랑·신부감은? / 47

- (2) 북한 주부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5장 6기란? / 48
- (3)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을까? / 49
- 4. 경제생활은 어떠할까? / 50
 - (1) 수입원과 소득은 어떨까? / 51
 - (2) 화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53
 - (3) 북한의 주민들은 백화점이나 시장을 얼마나 이용할까? / 54
- 5.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56
 - (1)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57
 - (2) 언제 휴일이나 휴가를 가질까? / 58
 - (3) 북한 사람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할까? 휴대폰은 있을까? / 59
 - (4) 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 60
 - (5) 북한의 사회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양립할 수 있을까? / 61
- 6.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 63
 - (1)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 64
 - (2) 여가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 65
 - (3)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 66
 - (4)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르는데? / 68

III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 69

- 1.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 71
 - (1) 북한의 학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을까? / 71
 -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 72
 - (3) 북한에도 우리의 특수 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 73
 - (4)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선택과목을 배울까? / 74
 - (5) 우리처럼 영어를 중요시할까? / 75
- 2.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 76
 - (1)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 76
 - (2)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 77
 - (3)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 79

- (4) 북한에도 야간 자율 학습이 있을까? / 80
- 3. 과외 및 여가생활은 어떠할까? / 81
 - (1)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 활동을 어떻게 하나? / 81
 - (2) 북한의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할까?, 오락 게임도 있을까? / 82
 - (3) 북한 연예인들은 팬클럽을 갖고 있을까? / 83
 - (4) 노래방은 있을까? / 85
 - (5)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만화 영화는? / 85
 - (6) 북한 청소년 문화도 서구식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 87
- 4.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 88
 - (1) 수능시험이 있을까? 속칭 일류 대학은? / 89
 - (2)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 교제를 하고 있을까? / 90
 - (3) 친구를 따돌리거나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 90

IV

하나됨을 위하여 / 93

- 1.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 95
 - (1)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 95
 - (2) 나눔의 문화가 풍성한 사회 / 96
 - (3) 인간 중심적인 시장 경제 체제 / 97
 - (4) 강한 국력을 지닌 사회 / 97
 - (5)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 98
- 2.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 / 99
 - (1) 동·서독의 만남과 하나되기 / 99
 - (2) 중국·대만 간의 만남과 다가서기 / 100
- 3.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 102
 - (1) 평화 만들기에 기초한 사실상의 통일을 위하여 / 102
 - (2) 마음의 통일을 위하여 / 104
 - (3) 주변국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 105
 - (4)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 107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할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우리들이 항상 바라는 것
서로가 웃고 돕고 사는 것
이젠 함께 하나를 보며 나가요
언젠가 나의 작은 나의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젊은 우리 힘들이 모이면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으로 큰 힘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중에서)

1.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2. 왜 통일이 필요할까?
3.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I. 21세기,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1) 왜 분단된 삶이 시작되었을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심훈의 '그날이 오면' 중에서)

해방의 환희는 이날을 맞이한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날이 오면'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등진 순국선열들도 지하에서나마 목이 메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 것이다.

해방은 바로 민족의 새로운 탄생이고 부활이었다. 따라서 해방의 일차적 과제는 민족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다. 해방된 조국에 어떠한 외세도 간섭하지 않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해방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데다 해방 정국을 이끌 주도 세력의 부재, 미·소의 한반



8·15 광복

도에 대한 야망, 민족 내부의 갈등 등으로 결국 분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한반도의 분단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1945년 8월 15일의 분단이다. 한반도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일본군의 무

장해제를 위한 명분으로 갑작스럽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둘째, 1948년 8~9월의 분단이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분단을 잠정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 분단은 해소되고 통일 정부가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분단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고착화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는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9월 9일에는 평양에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미 한반도의 분단은 공식화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1950년 북한의 대남 무력 침공에 의한 6.25 전쟁으로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었고 남북 간의 적대감은 심화되어 갔다.

그러면 왜 우리 민족은 한민족으로서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한제국 시기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을 막지 못하고 식민지로 합병된 점을 들 수 있다. 즉 19세기 후반 청·일·러 등 열강의 각축 속에서 근대적 민족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일본에 국권을 상실하였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둘째로, 독립운동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이다.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일제에 강제로 합병된 이후 많은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대립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의 방법을 둘러싸고 다투었다. 특히 그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독립이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을 보인 것이 분단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의 고착은 상당 부분 우리의 취약한 민족적 역량 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분단이 형성된 국제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연합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와 이를 둘러싼 각축과 경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민족의 완전 독립과 통일된 정부 수립의 열망은 연합국들에게 있어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연합국의 구상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자는 것이었다. 우선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분할 점령하다가 곧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소 분할 점령의 상황을 대치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4개국 신탁통치의 기간을 거친 다음 완전한 독립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연합국은 실제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 외상 회담을 열고 4개국 신탁통치안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볼 때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 통치에 그 원인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서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산물로서 소련의 팽창 정책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 낳은 '국제형 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분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을까?

(가) 일본의 패망과 분할 점령

일본의 항복 이전에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사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반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전의 식민지들에 대한 미국의 전후 구상이라는 맥락에서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했다. 소련은 즉시 일본에 선전 포고를 했다. 8월 11일 일본은 스위스를 통해 항복을 제의했다. 소련 극동군 25군 사령부는 빠른 속도로 만주 전역에 이어 8월 24일 북한에 진주하였다.

미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제의하였고, 이 제안은 영·중·소 3국의 동의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945년 9월 8일 미국은 인천을 통해 남한에 상륙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기주의로 날뛰다든가 혹은 일본인 및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 재산 및 시설 기관의 파괴 등의 경거망동을 하는 행동은 피할 것이며……”라는 새로운 군정 시책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45년 9월 20일 미 군정이 정식으로 발족되었고, 이후 북한의 분할 작업에 대응하여 미 군정 당국은 1946년 2월 ‘조선 민주 의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1946년 2월 8일 소련은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발족시켜 사실상 북한 내에 단독 정권이 들어서게 하였다.

(나) 신탁 통치 논쟁

미·영·소 3국 외상들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3상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미·소는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소의 합의 사항이 한국민에게 알려지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결국엔 그로 인해 연합국 간의 중대한 합의 사항이 폐기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 한국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12월 28일이었다. 한국민은 물론 국내 모든 정치 세력들 또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좌익은 1946년 1월 2일 반대에서 찬성으로의 태도를 돌변하였다. 이로써 신탁통치 문제는 좌우익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나아가 민족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다) 남한만의 정부 수립인가? 단일 정부 수립인가?

1947년 10월에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통일 독립 정부 수립 노력을 유엔에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유엔이 한반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을 결의하고, 1948년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으로 하여금 총선을 돕도록 했으나, 1948년 1월 소련 군정 당국이 위원단 입북을 거부함으로써 단일 정부 수립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이승만과 한민당계를 포함하는 우익 세력은 단선 단정을 통한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된 단일 정부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협상과는 4월 27~30일 사이 평양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 단체 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김일성 등에게 이용만 당한데 실망하여 5월 5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지 중장은 남북 협상에 대한 불찬성 성명을 발표하였고, 5월 10일 남한에서만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라)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탄생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유엔 감시하에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 유엔은 한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 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어 1947년 2월에는 면·리 인민 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이 기구는 사실상 북한의 단독 정부였으며, 이 기구의 발족으로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결국 북한은 1948년 7월 10일에 그리고 남한은 7월 17일에 각각 헌법을 채택하고,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이, 북한에서는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이 탄생하기에 이른다.

(마) 6·25 전쟁과 그 결과



6·25 전쟁의 비극

외세에 의해 지리적으로 분단되고, 그와 병행하여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분열' 이 가속화되었다. 민족 내 통합의 실패는 '정치적 분립' 으로 이어졌으며, 미·소 간 냉전체제의 구축과 이로 인한 남북 간 이념적 갈등은 6·25라는 전쟁으로

표출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발발한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남한과 북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중공군이 참전하는 대규모

국제 전쟁으로 비화했다. 전쟁의 결과 남북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토는 극심하게 파괴하였다. 아울러 남북 간에는 극도의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생각해 보기

우리 마음속에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2. 왜 통일이 필요할까?

(1)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분단 이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태로 살아왔다. 휴전 중이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휴전선

그래서 한반도는 세계에서라도 비교적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155마일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200만 가까운 군대가 상대편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것도 재래식 무기에서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포함하여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이룩한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과거 6·25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휴전 중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신무기들을 구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통일은 이러한 낭비 자체를 없애 준다.

한편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은 우리 사회 내부에 비평화적인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때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념 논쟁과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든지 인간 사회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세대 갈등, 성(性) 갈등, 지역 갈등, 조직 갈등, 계층 갈등 외에 이념 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덧붙여 있다.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 지난 몇 십 년간 국가 역량이 낭비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으며, 우리 사회의 평화가 간혹 흔들리기도 했다. 통일은 이렇게 이념의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삶의 비평화적인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지새우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

눈물로 지새우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강산애의 '라구요' 중에서)

분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이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이산의 아픔, 이것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아픔이 어떤 건지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 지켜볼 수 있었다. 치매로 정신이 나가 있었던 어머니가 그리던 만아들의 이름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잠시 제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으면, 마음 속에 얼마나 담아 두고 있었으면 잠시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 모습을 보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천륜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전통적인 가족주의 의식이 적다고 알려진 청소년들도 이러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보고 '가족의 고귀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한 청소년은 "외아들이니 집에서 떠받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북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TV에서 보고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소식도 모른 채 50여년을 떨어져 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랑해요. 부모님, 누나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우리 사회의 세대간, 가족간에 파여 있는 골을 메우는 '부수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념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왔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한 핏줄들이었다는 것, 한 동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사를 하나로 만들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분단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요즘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통일을 하면 경제적·사회적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골치 아픈 통일보다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에서처럼 평화와 사랑에 바탕을 둔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북한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통일 비용은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미래 국가상을 만들어 가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에는 통일 비용이 큰 부담으로 보이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결국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을 하지 않으면 그 대신 분단 비용을 치러야 한다. 분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단 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분단 비용이란, 말 그대로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 즉 통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군사비, 체제경쟁 비용 외에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국가 역량의 낭비에 따른 비용, 전쟁의 공포로 인한 비용 등도 포함된다. 지난 50여 년 동안의 분단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 이후 들어가게 될 통일비용을 훨씬 넘는 액수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통일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분단 비용이 절감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은 이렇게 분단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 외에 오히려 통일이 되면 유무형의 '통일 편익'도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한다. 통일 편익이란 통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들을 말한다. 즉 체제경쟁 비용이라든가 군사비 같은 분단비용의 해소, 평화가 얻어짐에 따른 이익,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 남북한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됨에 따른 이익, 대륙으로 연결됨에 따른 이익,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짐에 따른 이익 등등을 말한다. 아마 이러한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로 인한 통일 비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분단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단이 지속되면 통일 후 얻게 될 통일 편익도 얻지 못하게 됨을 생각하여야 한다.

(4) 문화·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분단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북한의 차이를 크게 심화시켰다. 남북한의 차이, 즉 이질화는 상호 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같은 민족이 갖는 정체성마저 잃고 갈라져 사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대륙과의 육로교통이 막혀있는 섬과 같은 현재 우리의 활동영역을 더 크게 넓혀 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남북한의 문화적 장단점을 융합시켜 선진적인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문화 예술에 있어서 민족적 요소를 현대화시킨 측면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전통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을 보유하고 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는 단순한 경제 경쟁력을 넘어 문화적 경쟁력도 요구하고 있다. 정보 사회로 돌입하면서 그 국가 고유의 문화 가치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장점들을 한데 합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풍부한 문화 예술 상품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문화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합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두 배의 국가 역량을 가져다 주고 사회 복지 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북한은 매년 GNP의 30% 이상을, 우리나라는 GNP의 3~5%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만일 통일을 계기로 통일 독일처럼 군사비를 GNP의 1~2%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남북이 지출해왔던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는 교육과 사회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곧 우리의 교실과 교육 매체 등에 투입되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또한 여가 생활 시설의 확충을 통해 청소년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단은 한반도 남쪽으로 우리 활동의 영역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안목까지도 좁혀 놓았다. 본래 우리의 역사와 활동 영역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심성 또한 넉넉하고 포용적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분단은 우리를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제한적 사고의 틀에 갇히게 하였다.

따라서 통일은 우리의 활동 영역을 만주와 중국 대륙을 지나 광활한 시베리아로 나아가서 유럽 대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물론 해양으로의 진출을 넓힘으로써,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넓혀 줄 뿐만 아니라 세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유럽이나 미주 대륙의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이웃 나라들을 오직 기차표 한 장만으로 여행할 수 있다. 이들은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언어들도 익히며, 자기 인생의 무대를 자기 나라로만 한

정 짓지 않고 인접한 여러 나라도 포함시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기 나라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웃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휴일에는 자기 나라에 와서 여가를 즐기는 식으로 생활한다.

통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여행을 북쪽의 금강산이나 백두산,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과거 말을 타고 달렸던 만주 대륙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의선이 복구되면 중국 횡단 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배낭여행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생활 무대도 넓어질 것이다. 21세기는 모든 분야에서 국경선이 의미 없는 네트워크 시대로서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사고를 요구한다. 통일은 바로 '나'를 '세계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해 보기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 동포를 도와야 한다면, 그래도 통일을 해야만 할까? 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3.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1) 냉전 시대, 남북한은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

분단 이후 남과 북은 냉전의 그늘 아래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방하면서, 경쟁 관계를 유지해왔다. 즉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네가 불행해

야 내가 행복하다.”는 ‘홀로 살기’ 경쟁을 해 왔다.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체제 우월성을 높이고자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며 살아왔다. 이로 인해 남북한은 하나로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며 살고 있다.

(가) 남북 정치협상 회의의 결렬과 6·25

남북 대화의 역사는 1948년 4월 남측의 김구·김규식, 북측의 김일성·김두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치협상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의는 통일 정부의 수립이라는 당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1950년 북한의 남침을 계기로 남북한은 기나긴 적대와 반목의 냉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나)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의 통일정책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 총선거’ 방식을 강조하였으며, 우선 우리의 국력을 크게 키운 후 본격적인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는 ‘선 건설·후 통일론’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국제적인 데탕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선 평화·후 통일론’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분단 이후 지속된 냉전의 어둠을 뚫고 통일의 서광을 비춘 첫 남북한 합의는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그리고 이 합의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는 1972년 10월부터 남북 조절 위원회가 열려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부 간 공식적인 대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조절 위원회는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이견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

는 남북 관계가 오랜 냉각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표방한 이래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정착, 교류협력의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조는 제5 공화국 시절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6 공화국 시절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시절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거쳐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다) 북한의 수재 물자 지원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984년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북한 적십자회가 '수재 물자 제공'을 제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1973년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여 1985년 말까지 제2기 남북 대화 시대가 열렸다. 이 기간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과 함께 남북 경제 회담, 남북 국회 회담 예비 접촉 등도 같이 열렸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여 그리던 가족을 만나는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도 성사되어 드디어 한반도에도 데탕트의 봄바람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북측이 1985년 말과 1986년 초 한·미 연합군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회담을 거부함에 따라 남북 대화는 무산되었고 또다시 소강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라)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과 북한 핵문제의 대두

대결과 긴장으로 치달아 왔던 남북 관계는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과 그 산물인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의 체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이 주요 내용이며,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정치 분과 위원회와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남북한은 기본 합의서 외에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남북 연락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을 잇달아

발효시켰다.

당시 우리는 동·서독이 1972년 기본 조약의 체결과 함께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급속하게 증대된 사례를 상기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을 계기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아울러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가졌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남북 기본 합의서 서문의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함.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함.
-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함.
-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함.

그러나 북한이 1993년 3월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무기 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었다. 그 후 북한의 자연재해, 식량난, 경제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 북한의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체제 고수를 위해 대남 대결 정책을 취함에 따라 남북 관계는 또 다시 긴장 국면을 지속하게 되었다.

(2) 남북 정상 회담과 그 의미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은 서로 적으로 여기며 대결해왔던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 회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첫째,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대결과 갈등의 남북 관계를 바꾸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즉 남북 정상 회담은 민족 전체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적대·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화해·협력,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남북은 모두 대결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의 관계로 그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남북 정상 회담은 통일 문제는 같은 민족인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지나치게 '국제 문제화' 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그러나 정상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평화·통일 문제가 남북 대화를 기본 중심으로 하고, 주변국가들이 이를 도와주는 기본 구도가 마련되었으며, 이제 남북은 이를 관철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송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셋째, 남북한이 평화 공존의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남북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 분위기를 굳혀 나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의 노력들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접촉과 대화, 협력과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휴전 상태인 한반도는 항상 '동북아시아의 화약고'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세계 언론들은 늘 국지적 전쟁 가능성 지역을 짚을 때 중동 지역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를 꼽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공존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등의 복구를 통해 동북아 전체가 하나의 물류 유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역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섯째, 남북 정상 회담은 우리 민족의 아픔인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을 열어 주었다. 남북한이 화해 협력, 평화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남북 정상 회담은 우선 시범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편지 교환의 길을 열었다. 이제 남북은 보다 더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면회소 설치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남북한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에서 발표된 남북 공동 선언 제2 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합의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의 통일 방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지, 통일

방안 자체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과거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완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실현될 경우 통일이 완성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 안은 국방권과 외교권을 중앙 연방 정부가 갖는 형태로 당장 통일을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등을 경험하면서 1991년 이러한 연방제 주장을 다소 수정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잠정적으로는 연방 공화국의 지역 자치 정부에 외교·국방권을 비롯하여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이후에 중앙 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수정된 연방제 주장은 과거 완성형 연방제 방식과 다르게 지역 자치 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연합' 적 성격과 유사해 보인다. 즉,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하는 중간 과정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아예 지역 자치 정부가 외교권, 국방권, 내정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중앙 연방 정부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이름만의 연방제를 설명하면서 이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통일 방안은 1989년 국회 공청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며, 1994년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를 계승하고 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 의식, 그리고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먼저 민족 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 상태를 만들어 가자는 점진적·단계적 통일 방안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 협력하는 과도적 중간 단계로서 '남북 연합' 단계를 두

고 있다.

그러면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로, 두 방안 모두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준비 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일 후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째로, 두 방안 모두 2제도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 간에 협력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국방·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 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 나간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두 방안 모두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과거 북한이 연방제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 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제 남과 북은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쪽의 당국 대표나 학자, 전문가 등이 모여서 토론을 계속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통성에 대한 선언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이 과거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연방제 주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앞으로 통일 방안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어떻게 다가서고 있나?

(가) 이산가족 상봉과 작은 통일

2000년 8월 코엑스(KOEX) 이산가족 상봉장에 남쪽의 가족들이 이미 몇 시간 전

부터 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북에서 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 진행 요원들은 마치 연극의 서막을 연출하듯이 북쪽 이산가족들을 번호표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필요가 없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북쪽의 가족들을 본 남쪽의 가족들은 한눈에 서로의 혈육을 알아보며,

“오마니, 오마니!”

“여보…….”

“오빠, 오빠 맞어?” “왜 이제 왔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부둥켜안은 가족들.

반세기 넘게 차갑게 식어 있던 가슴은 뜨겁게 하나가 됐다.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 이산가족들은 눈물의 포옹을 하며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작은 통일’을 만들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징표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토록 애타게 만들었던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드디어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우선 남북 정상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서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든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있었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설적인 면회소 설치가 이루어지면 이산가족의 만남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승용차로 2~3시간, 비행기로 1시간도 채 안되는 거리, 그곳에 남과 북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족쇄에 채워져 혈육의 정을 끊고 살아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이산가족의 상봉은 1985년에도 있었다. 그 당시 북측 이산가족들은 “위대한 수



반세기만에 만난 이산가족들

령 김일성 주석께서 은덕을 베풀어 이렇게 상봉을 이뤄주시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의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말만 하여 상봉하는 가족들은 서먹서먹해 했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2000년 북한측 이산가족들은 한결같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은덕을 내세우면서도 “앞으로 꼭 통일된 나라에서 다시 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말을 하며 남쪽의 가족들과 진한 혈육의 정을 함께 나누는 ‘작은 통일’ 을 이룩했다.

(나) 경제 교류 협력에서의 새로운 지평

남북 정상 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민족 전체 발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그 시범적 사업으로 ‘달리고 싶은 철마’ 를 달리게 하도록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나아가 문산·개성 간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 모두가 당장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민족의 복리와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준다. 나아가 이 두 사업은 모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의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호 신뢰와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은 수차례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경제 교류 협력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 즉 투자 보



클릭

알고 싶어요

○ 중국·대만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

주한 대만 대표부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정치 상황은 아직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소한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이산의 아픔은 완전 ‘해갈’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는 1987년 11월 장징궈(蔣經國) 당시 대만 총통이 계엄법을 폐지하면서 터졌다. 그러나 사실 중국이 이에 앞서 1978년 개혁·개방을 주창하면서 대만에 통상·통항·통우(서신 교환) 등 3통(通)을 제안하고, 이어 1981년에 이산가족 재회를 제의함으로써 이미 그 길은 열리고 있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친척 방문, 병문안·조문 등의 명목으로 대만을 찾은 중국 본토 사람은 56만 명이 넘고 대만인의 본토 방문은 1,60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의 이산가족 교류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하여 양안(兩岸) 간 정치적 상황이 최악의 긴장 국면에 빠져도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동·서독의 이산가족 사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독일은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동독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 주민 간에는 편지 연락이 가능했고, 전화 연락도 끊기지 않았으며, 만남도 허용되었다. 오히려 서독의 가족들이 가난한 동독 가족들에게 보내는 소포들이 동독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는 유지될 수 있었다. 동독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은 1972년 동·서독 간에 기본 조약이 만들어지고 동독 정부에 의해 ‘가사 방문’이 허용되면서부터였다. ‘가사 방문’이란 서독에 있는 친척의 출생, 세례, 결혼, 문병, 문상 등을 위한 방문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은 연 평균 700~80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장 협정이라든가 이중 과세 방지 협정 등을 체결한 바 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지만, 원활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간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제 협정들이 요구된다. 남과 북은 그동안 이러한 경제 협정 없이 거래와 협력이 이루어지다 보니 경제 교류와 협력의 질적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일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시행된다면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남과 북 양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사전 통일 준비도 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지향하는 민족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지금 이 기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다) 한반도 시대를 여는 철도·도로 복원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신의주 운행을 마지막으로 '민족의 대동맥'이 단절된 지 55년만에 경의선을 복원하고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공사가 마침내 시작됐다. 연결되는 구간은 문산역에서 개성 간 20km, 통일 대교와 장단 간 6km의 왕복 4차선 도로 구간이다.

경의선 복원 공사가 북측 구간에서도 시작되어 남북 간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경의선을 타고 평양과 신의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끊어졌던 민족의 대동맥이 다시 이어지는 경의선을 복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의미는 분단의 장벽인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넘어 평화의 기차가 달리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뢰밭을 기차길로!' 이것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또 있을까? 남



경의선 '엄원의 열차' 출발

북한은 앞으로 한반도 서부 동맥을 연결하는 이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원산, 함흥까지 가는 기차길도 복원하여 동부 전선의 군사분계선 철조망도 끊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됨으로써 물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의 가능

성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경의선이 복원되면 남한은 육로를 통해 많은 물자를 대륙으로 실어 나름으로써 전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지는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은 외국의 물자가 통과하는 데 따른 통과 비용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경의선 복원은 '한반도 시대'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높여 우리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의선 복원이 단순히 남북의 끊어진 철도를 잇는 차원을 넘어, 중국 횡단 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이른바 '철(鐵)의 실크로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과 함께 문산에서 개성으로 가는 1번 국도의 연결은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한의 육로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의 육로가 대륙과 연결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경제적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고, '반도의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대륙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역할도 한다.

최근에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북한과 면밀한 협의하에 잘 진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한반도 기 아래 하나된 남과 북

남북 정상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듯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의 선수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반도 기 아래 함께 입장하였다.

남북한의 선수들은 2000년 9월 15일 오후 7시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동시 입장하여 11만 8천여 관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진한 푸른색 재킷에 베이지 바지를 입은 남북 선수단은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을 맞든 정은순(남한)·박정철(북한) 두 선수를 앞세워 당당하게 스타디움에 들어섰다. 이 모습만큼 올림픽 정신에 부합되는 모습이 어디 있을까? 세계인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모두 기립 박수를 아낌 없이 보내주었다.

특히 2002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드니와 부산의 대화합을 기초로 스포츠를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956년 바로 이 호주에서(멜버른 올림픽) 동·서독 선수들이 최초로 단일팀을 만들어 동시 입장하고 34년 후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동·서독 동시 입장은 어떻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분단된 동·서독은 1952년 헬싱키 대회에 서독이 단독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하지만 동독은 1951년 로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총회에서 단일팀 승인을 요청했고, 동·서독은 진통 끝에 IOC의 중재로 1955년 6월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여 드디어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동시 입장했다.

동·서독은 이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대회(이탈리아),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 도쿄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단일팀을 구성했다. 1956년 당시 국호는 독일, 단기는 흑·적·황 3색의 독일기에 오룬 마크를 달았으며 국가는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환희의 송가'였다. 선수 선발은 동·서독 구분없이 우수 선수를 뽑았고, 단장은 다수 선수를 파견하는 쪽에서 선임됐다. 그때 선수단 규모는 서독 138명, 동독 37명이었다. 이와같은 아이디어는 IOC가 내놓았다. 당시 브런디지 IOC 위원장은 "수많은 정치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스포츠인들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생각해 보기

남과 북이 서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II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볼까?
2.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3. 가정생활은 어떠할까?
4. 경제생활은 어떠할까?
5.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6.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II. 북한 사람들의 삶

1. 북한의 문을 두드려 볼까?

(1)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북한은 과거 6. 25 전쟁을 통해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적이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분명한 '안보 위협의 대상' 이자 '대결의 대상' 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은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즉 아직 안보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함께 살며 통일을 이루어 가는 '동반자' 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동반자로서의 북한이 보다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원히 평화가 정착되고 제도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중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에 유념하고, 북한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항 영접

균형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완화하는가 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서는 장관급 회담이 수차례 열렸고, 남북 연락 사무소 업무가 재개되도록 하는 등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 복원과 같이 남북한 사이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화해·협력 조치들을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기고, 앞으로 북한이 보다 많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북한은 어떤 곳인가?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엔(UN)의 한 회원국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구는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현재 2,225만 3천 명이며, 국토 면적은 122,762km²(2001년 현재 한반도 전체 면적 222,418km²의 55%)이다. 이처럼 북한에는 우리나라 1/2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토 면적은 약간 넓어,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 가지의 광물 자원이 확인될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에는 경제성이 있는 유용 광물만도 20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1위(전 세계 매장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안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형석 등 7가지나 된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

는 달리 풍부한 금속 광물과 에너지 광물을 이용하여 공업 원료와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 구역은 광복 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왔는데, 면 단위의 행정 구역이 폐지된 현재는 4직할시, 9도, 24시, 31구역, 146군, 2구, 146읍, 3,255리, 1,137동, 255노동자구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사회는 그 특성상 다른 사회와는 달리 이념과 정치, 군사부문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수령의 유일 영도에 따라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주의라는 의미이다.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이념과 가부장적 봉건 이념이 결합된 사회로서 주민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17만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강성 대국론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려는가 하면, 2002년 7월부터는 배급가격 등을 현실화하는 경



북한의 행정 구역

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여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적 실용주의를 확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이제 느리지만 “변하지 않는 사회란 없다.”라는 진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클릭

알고 싶어요

○ 북한의 국가명·국기·국화·수도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North Korea)이다. 국기는 홍람오각별기이며, 국가는 애국가(우리나라의 애국가와 가사가 다름)이다. 국화는 목란이며 수도는 평양(Pyongyang)이다.

○ 노동자구

노동자구는 공장·광산·임산 마을과 어촌 등에 조직되는 기초 행정 단위를 말한다. 일정 수 이상의 성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들의 65% 이상이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1952년 12월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를 도(직할시), 시·군(구역),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조정하면서 면을 폐지했는데, 노동자구는 이때 생겨난 새로운 행정 단위이다.

○ 강성 대국론

북한이 1998년 9월 5일 김정일을 국방 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김정일 시대를 시작할 즈음에 제시한 정치 선전 구호를 말한다. 이 구호는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 강국과 경제 강국을 통해 강성 대국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일종의 '북한판 부국강병론'이며, 김정일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정 방향이기도 하다.

(3)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기관은?

북한의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독재 체제와 수령 지배 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 구조는 노동당 1당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각종 국가 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치 기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당은 수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예컨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 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만을 갖는 형식적인 추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 의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김정일을 국방 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당 총비서와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질적 최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무원을 개편한 내각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분야 32개 부서를 23개로 통폐합하였다.

국방 위원회 위원장직은 북한의 권력 구조상 실질적으로 최고 정점에 위치한다. 즉 국방 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 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방 관리 기관'인 것이다. 이는 국방 위원회가 국방 분야에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상으로 볼 때 결국 국방 이외의 국가 업무를 다 맡고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내각은 최고 주권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며 '전반적 국가 관리 기관'이다.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지방 주권 기관으로서 비밀 투표로 선출된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 인민 회의가 있고, 인민 회의가 휴회 중일 때 행정을 담당하는 기



알고 싶어요

○ 김정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김정일의 현재 공식 직함은 국방 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와 군 최고사령관이다. 김 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주민들은 김정일을 공식적으로 수령으로 호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대 수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현재 북한 내에서 당·정·군 모두를 장악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 억압과 사상 통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대남 도발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 면에 비친 그의 모습이나 북한 언론 매체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최근 현상에 나타난 행동만 보지 말고 그의 과거와 앞으로의 태도 등을 보아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국방 위원회

북한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 관리 기관이다. 1972년 12월 27일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석이 최고 사령관,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2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국방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1998년 9월 5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사실상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생각해 보기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관인 지방 인민 위원회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사법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북한의 검찰소와 재판소가 있다. 검찰 업무는 중앙 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 검찰소가 시행한다. 재판소의 경우 중앙 재판소와 인민 재판소, 특별 재판소가 있다.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하여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고 재판 기관이며 모든 재판소의 재판 사업을 감독하는 중앙 재판소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하는 등 정권 기관이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의식주 생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의식주 생활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주에 관한 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일찍이 김일성은 1962년 “7년 계획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게 된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의 의식주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1) 북한 사람들은 어떤 옷을 주로 입을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의관을 중요시하였다. 옷은 인간의 품위와 신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의생활이 중시되고 있다. 그



양장 차림의 평양 여성

러나 노동복이 일상복화된 북한 사회에서는 의생활이 우리처럼 중요시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다.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쓴 ‘모택동식 복장’이,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79년 4월 김일성 주석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 복장을 해야 한다.”는 교시를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도 점차 양복이나 양장 차림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4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여성들이 소매 없는 옷과 앞가슴이 많이 팬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회주의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에는 옷의 패션,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당 기관지나 방송 매체에는 패션 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졌다. 평양시 피복 연구소 주관하에 춘추 의류 전시회, 평양시 옷 전시회 등도 열리고, 1995년 4월에는 ‘세계체육문화축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패션쇼까지 열렸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당의 요구 아래 주로 의복의 ‘1차적 기능(몸의 보호기능)’에 맞추어 옷을 입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의복의 ‘2차적 기능(멋의 창조)’도 생각하여, 패션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니스커트나 티셔츠에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은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행여나 짧은 치마를 입더라도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여한 한국 외국어 대학교 임수경 학생의 영향으로 북한 청소년들도 티셔츠에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한 옷차림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라며 단속하는 당국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옷차림이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양복·양장 차림으로 변화하고 유행을 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 인민복, 작업복 차림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의류 소비 실태는 식량 사정보다는 덜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아 왔으나, 90년대 이후 의류 배급이 중단됨에 따라 장마당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입,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스스로의 개인적·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을 하기 어렵다. 예컨대 여성복의 경우 북한은 직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작업복을 착용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유행과 디자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옷차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의복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부 특수층만이 의복 선택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북한 사람들은 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주 어렵게 사셨던 때가 있었다. 이때를 비유하여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보릿고개'란 봄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서 털 익은 보리를 수확하여 죽 등으로 만들어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시절을 일컫는다. 그런데 북한이 요즘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북한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지 식량자급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



대북식량 지원

금의 식량난은 왜 일어났을까?

첫째는 사회주의식 농업 생산 방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협동 농장이나 국영 농장에서 공동 생산하

고 수확 후에 공동으로 분배한다. 따라서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북한도 이런 문제를 이미 1980년대부터 겪기 시작하였다.

둘째, 주체 농법으로 이야기되는 농업 정책의 문제점도 한 원인이다. 주체 농법이란 식량 생산 위주의 농사법으로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농사법이다. 즉 한 평당 토지의 수확물을 많이 내기 위해 작물을 촘촘히 심거나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식량 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다락밭으로 만들고, 밭작물을 모두 옥수수 위주로 심는 농사 방식이었다. 최근 북한은 주체 농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수정하고 있는 중이지만, 다락밭으로 인한 홍수 피해 등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구소련으로부터 받아 오던 농업 원자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북한은 자립 경제를 강조해 왔지만 식량만은 결코 완전히 자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초 에너지, 기초 농업 원자재 등을 구소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지원이 중단되자마자 식량 생산이 상당히 감소하게 되었다.

넷째, 경제난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황폐화를 들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비료 생산, 농약 생산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다섯째, 자연재해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다. 북한은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는 북한 식량난의 부차적 요인일 뿐이다. 앞서 말한 4가지 요인들이 북한의 식량 생산 감소에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다. 또한 식량과 함께 육류를 비롯한 부식도 있어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간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유감스럽게도 부식이나 간식을 잇은 지 오래다. 북한 주민들은 자연 열매를 이용하여 부식 및 아이들의 당과류를 해결한다. 즉 도토리로 된장이나 간장을 담그고, 머루나 다래 등 자연 당분을 이용한 사탕 과자를 만든다. 그 질도 질이지만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 일반 주민들은 거의 간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커피 등의 각종 차와 음료 등은 고위층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3)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북한의 음식은 대체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음식으로 나뉜다. 평안도는 냉면이 유명하며, 함경도는 창란젓, 명란젓, 명태순대, 명태식혜 등 명태를 이용한 음식이 유명하다. 황해도는 녹두묵채, 보쌈김치, 새우찜, 김치순두부 등이 유명하며, 강원도는 특산물인 금강산 송이를 이용한 요리가 유명하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해 이러한 다양한 지역 특산 음식을 먹기 어렵다고 한다. 주식도 부족하지만 갖가지 종류의 양념과 부식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식생활에 필요한 음식 재료들을 각 직장에서 발급받은 배급 카드를 가지고 국영 상점에서 보통 15일마다 구매하고 있지만, 2002년 7월부터는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배급제도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이나마도 제대로 배급이 안되고 있으며 국영 상점에도 음식 재료들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처럼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음식을 먹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주로 강냉이밥을 먹는다.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히 쌀로만 주식을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 계층뿐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옥수수, 감자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옥쌀밥, 강냉이밥, 강냉이국수사리, 강냉이농마국수사리, 강냉이올챙이국수사리, 강냉이골무떡, 강냉이무설기떡, 강냉이송편, 강냉이남새빵, 강냉이찜만두, 강냉이가루떡국, 강냉이지짐, 풋강냉이지짐, 강냉이묵, 강냉이농마묵, 강냉이쌀엿, 통강냉이엿, 강냉이단묵, 강냉이단지짐 등이 있다. 강냉이로 개발한 음식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근에는 감자 요리도 300여 가지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들 음식 중에는 별식으로 먹는 음식도 있다. 그러나 주식이 옥수수, 감자이다 보니 이처럼 많은 종류의 음식이 개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 북한의 주거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주거 생활 변화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주택의 규모가 커지고 시설 수준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소득의 증대와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단독 주택과 함께 아파트가 많아졌다. 그리고 주택을 선정하는 데에는 편리성, 위생성, 합리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의 주거 생활은 어떨까? 북한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의 주거 생활은 집단 살림집인 아파트를 기본으로 한다. 북한에서 주택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복잡한 주택 공급 제도에 비해 북한의 제도는 매우 단순하다. 별도의



북한의 주택

의 저축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청약할 필요도 없으나 그냥 신청서에 도장을 찍은 후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대도시에서 사는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들은 보통 방 2~3칸짜리 아파트를, 일부 주민들은 하모니카집으로 불리는 방 1~2칸짜리 연립 주택을,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짜리 단독 주택을 배급받는데,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 갖는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에서 따라 독립 가옥이나 연립 주택·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게 된다. 물론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은 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주택 사용료라고 부르는데, 북한 당국은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액의 0.3% 수준이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 내외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 내용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경우이고, 2002년 7월 가격 제도 개혁 이후에는 주택사용료 등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별로 의미가 없다.

최근 대도시의 주택 사정은 다른 기초 생활필수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워졌

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오며, 한 주택에 2 가구가 같이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주민들은 가까운 장래에 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각 직장이나 협동 농장에서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주택의 난방·취사 연료는 대부분 구멍탄, 갈탄, 목재, 농작 폐기물, 열진(가루로 된 석탄) 등을 사용한다. 석유나 가스 연료, 인근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난방은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나 중소 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가능하다. 전기와 수도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전이나 단수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물은 시간제로 사용하는데, 지방 아파트나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온수관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생각해 보기

왜 북한에서는 '의식주' 라고 하지 않고 '식의주'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할까?

3. 가정생활은 어떠할까?

북한에서는 가정을 김일성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등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세포라고 보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은 여성 해방이란 목표하에 남녀평등권과 혼인과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선 북한은 사회주의 개혁 정책과 함께 호적 제도를 봉건 사회의 잔재로 보고 이 제도를 폐지한 후 공민증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후 1950년대에는 가족 중심의 경제 활동을 사회주의적 경제 활동으로 바꾸기 위해 가부장제

와 대가족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국가에서 담당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더욱 필요해짐에 따라 북한은 제반 사회적 여건을 형성하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를 위한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하게 된다. 김일성 유일 지도 체제는 북한을 가부장적 가족 국가로 변모시켰고, 개별 가족은 '사회의 세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에 의한 복고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8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동원 지향의 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기혼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동시에 북한은 가정을 사회의 세포로 규정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 여성관을 지속 내지는 강화함으로써 김일성 부자 세습의 가족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을 형성할까? 어떤 배우자를 선호할까?

(1) 결혼에서 선호하는 신랑·신부감은?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최근에는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 전통적 가치관,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 요소들을 혼합하여 선택했다고 한다. 즉 남성의 경우 이상적인 여성 배우자를 "마음씨가 좋고, 소박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 공대를 잘하고, 아들·딸을 잘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여성의 경우 "양심껏 일하고 사려 깊으며 성격이 좋은 사람"을 이상적인 남성 배우자로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최근 많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이 중



북한 가정의 거실

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점 더 물질적 조건들을 많이 따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감의 직업으로 군관, 당·정 간부, 기술자를 희망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운전자·기관사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이나 외화를 만질 수 있는 무역 회사 실무자, 외교관이나 유학생처럼 외국에 나

다닐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남성들은 배운 여자, 똑똑한 여자보다는 안정되고 돈벌이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다. 특히 호텔 직원, 식당 접대원, 백화점이나 외화 상점의 판매원 등 서비스업 계통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인기가 높다. 외제 상품을 구하기 쉬운 데다가 뒷돈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한 주부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5장 6기란?

북한에서는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과 재산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가정생활 용품 가운데 이른바 '7기'라고 부르는 TV 수상기·세탁기·냉장고·녹음기·사진기·선풍기·재봉틀을 전부 갖춘 가정은 당 간부나 극소수의 부유 계층에 불과하며, 대부분 주민들은 이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TV의 경우 대동강 TV 공장에서 생산된 20인치 흑백 TV의 2002년 6월 이전 국정 가격이 620원이었다. 장마당에서는 북한제 흑백 TV가 12,000원, 중국산 TV는 14,000원, 일본산 TV는 3만 원에 판매됐다고 한다. 이는 당시 북한의 일반 노동자들 월 평균 임금(약 100원)의 6~30배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북한은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거주지 인민반의 '가전제품 등록부'에 반드시 등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압수당하고 전기 공급도 차단된다.

일반적으로 세간살이에 대해서 북한 주부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을, 6기란 TV수상기·냉장고·세탁기·재봉틀·사진기·선풍기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의 세간만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나마도 생필품과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다.

(3)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족보가 있을까?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맞는 새로운 가족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대가족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구조와 동족 집단의 조상 숭배 관념은 사라졌다. 또한 호적 제도를 봉건주의의 잔재라 하여 없애고 친족 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했다.

따라서 북한에는 족보가 없다. 북한 당국이 보기에 족보는 봉건 시대의 잔재이자 종파주의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새로 족보를 만드는 일도 정권 수립 초기에 없애 버렸다. 더불어 종친회 조직이나 모임도 자취를 감추었다. 집안의 뿌리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의 신세대들은 자신의 본관이나 집안 내력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동유럽 유학 중 우리나라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였다. "본관이 어디냐?"는 물음에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한다. 북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였지만, '본관'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 성씨냐?"

라는 물음에도 그는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 보기

남북한 주민의 이성관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4. 경제생활은 어떠할까?

북한의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며,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는 관리 제도와 운영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북한 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주민들에 있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제 활동이나 부의 축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국가가 인정해 주는 개인적 소유만 자유로운 의사나 판단에 의해 처분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된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하여 주는 개인적 소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노동자 및 사무원이 직장을 통해 받는 정액 임금과 기타 상급,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용품들과 외화 벌이 등의 수매 사업에 동참하여 받은 생활용품들이다. 이것은 개인의 근로 소득과 저축, 그리고 과외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구입한 가정용품과 일용 소비품, 또 협동 농장의 텃밭 생산물과 그 생산을 위한 간단한 농기구, 예를 들면 삼·호미·괘이 등의 생산 기구에 대해서만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한 경제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들 수 있다. 경제 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노동당 지도부에 내각의 국가 계획 위원회에 의해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국가 계획 위원회에 의해 통제 및 조정을 받는다.

경제 체계가 일원화된 체계이듯 가격 체계도 일원화된 형태를 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가격은 대부분 희소성의 원칙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즉 북한의 가격 체계는 생산, 자원 분배, 소비 등을 결정하는 자율적 요소가 아니라 계획 당국의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끝으로, 중공업 우선 정책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공업을 “생산 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들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의 우선적 발전을 통해 생산력이 제고되면, 동시에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도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해 중공업만이 발달하게 되었고, 다른 산업 부문들은 초보적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경공업을 도외시하고 중공업 정책을 중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 중반 들어 경공업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각 공장의 가동률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필품 보급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경제 체제하에서 북한 사람들의 가정 경제와 소비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 수입원과 소득은 어떨까?

북한은 정부 수립과 동시에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 협동화하였다. 해방 전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기반과 소득원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연명할 수 없게 되었다. 즉

농장원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은 직장으로부터 받는 임금이 주 수입원이 된다.

남한에서 임금은 대체로 연 10% 미만의 한 자리 숫자에서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 등 생활 여건과 연동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비록 암거래 시세가 상승하고 있을지라도 공정 가격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공정 가격 위주로 경직될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원은 임금이고 임금이 의해 모든 생활비가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식·의·주와 생활비가 저렴하고 각종 무료 혜택 등이

북한의 계층별 임금 수준

구 분	직 책	임 금
당·정 기관	- 당 내각 부장	300~350원
	- 내각 부부장, 도 인민 위원장	250~300원
	- 도 인민 위원회 부위원장,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	170~200원
공장 / 기업소	- 특급 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 1~2급 기업소 지배인	150~200원
노동자 / 사무원	- 광부, 제철, 제련공 등 중노동자	90~100원
	- 일반 기계공, 운전기사 등 경노동자	75~80원
	- 일반 경노동자	70~80원
	- 사무원	60~70원
교 원	- 대학 교원	200~250원
	- 일반 교원	80원
군 장교	- 장성급	250~400원
	- 영관급	120~215원
	- 위관급	84~110원
서비스 종사자	- 여관, 이발소, 식당 등 편의 시설 종사자	20~60원
	- 의사	120~250원
	-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등	200~500원

출 처 ; 한국은행, '2001 북한 이해' 에서 재인용

※ 2002년 7월이후 계층별 임금 수준은 20~30배 인상

많아 실제 임금 수준은 아주 낮다.

(2) 화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북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에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5종과 주화 5종 등 10종이 있는데 통상 '인민폐'라 부른다. 지폐는 1원·5원·10원·50원·100원의 5종류이고, 주화는 1전·5전·10전·50전·1원의 5종류이다. 이 중 50원짜리 주화는 1979년 4월부터, 1원짜리 주화는 1987년 10월부터 유통되었다.

우리는 비교적 1000원권 지폐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 1원권 지폐를 많이 사용한다. 1원권은 세로 6.5cm, 가로 13cm로 남한의 1천원권보다 1~2cm 정도 작다.

외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 은행이 발행한 외화와 교환 가능한 특수 화



북한의 화폐들

폐 8종이 있으나, 1988년 9월부터는 무역 은행권이 대신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며 무역 은행에서 발행되는 '외화와 바꾼 돈표'는 1전에서 50원에 이르는 8종이 있으나, 2002년 7월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중 표면 색이 붉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와 바꾸었을 때 사용됐으며, 푸른 빛깔을 띠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화폐와 바꾸어 줄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북한 주민들은 백화점이나 시장을 얼마나 이용할까?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을 비롯한 각 상점



북한의 백화점

들이며, 상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 판매기, 자동 출납기, 상품 진열장 등을 보다 현대적인 설비들로 교체하는 등 상업 부문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으로는 공업품 상점, 백화점과 전문 상점, 일반 상점과 특제품 취급 상점, 대규모 상점과 소규모 상점, 직장 상점과 위탁 상점으로 구별된다. 이중 특히 규모가 큰 상점으로는 백화점, 종합 상점 등으로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리·동에는 직매점 또는 매대 등이 있다.

종합 상점 격인 백화점은 평양 중 구역의 제1 백화점, 제2 백화점, 역전 백화점(평양백화점), 아동 백화점 등이 있고, 모란봉 구역의 서평양 백화점, 동평양 선교 구역의 동평양 백화점이 있다. 이 중 평양 제1 백화점은 옛날 화신 백화점을 개축하여

1982년 4월에 완공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4만㎡의 규모를 자랑한다. 기본 매장은 1~5층이며 현재 종업원 수는 약 300명에 이른다. 매상고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며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여기에서는 국영 상점과는 달리 수입 상품까지 진열되어 있고, 호텔마다 외화 상점이 딸려 있다. 외화 상점은 평양에 10여 곳, 각 도의 소재지나 주요 도시 등에도 한두 곳씩 있다. 대표적으로는 평양 외화 상점, 보통강 외화 상점, 낙원 백화점, 약품 외화 상점, 대동강 외화 상점, 창광산 외화 상점, 고려 여관 외화 상점, 보통문 외화 상점, 서성 거리 외화 상점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상점들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상점들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등 유통 단계의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북한의 상점들은 공급과 수요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상점의 기능이 왜곡되어 있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암시장에서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생각해 보기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려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5.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북한의 사회 정책은 계급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과 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즉 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헌법 제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 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후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착취 계급을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지주나 자본가의 땅과 재산을 몰수했으며, 계급이 다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이유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시켰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주민들의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을 철저히 조사하여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의 3계층과 이를 다시 세분한 51개 부류로 구분해 놓고, 이 계층과 부류에 따라 철저한 차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회 정책에 따라 실제로 북한 사회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로 이끌어가는 통제의 기구와 장치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나는 주민 통제의 제도와 환경이며, 다른 하나는 각종 통제 기관과 기구이다. 전자에는 식량 배급제, 인민반, 조직 생활, 거주 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국가 안전 보위부, 인민 보안성, 국가 검열성, 사회주의 법무 생활 지도 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처럼 자가용이 많을까? 우리처럼 휴대폰을 사용할까? 일요일이나 휴가가 있을까? 고도로 조직화된 북한의 사회 질서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까?

(1)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북한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사회주의 노동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7시간제나 6시간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노동의 경우는 7시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노동 실태는 이와 다르다고 한다. 남성 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함으로써 총 13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 13시간 중 2시간은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 독보회라든가 '작업 총화'라 하여 정치 학습을 한다.

한편 여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 노동자보다 출퇴근 시간이 빠르고, 작업 시간 중간에 유아에 대한 수유 시간을 배려하고 있다.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2번에 30분씩, 1세 이상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오전·오후 각각 1번에 30분씩을 배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기상하는 시간은 오전 6시며, 기본 일과는 오전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 또 기본 일과가 끝나면 작업장별, 직장별로 1시간씩 작업 총화를 실시하고, 이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1~2시간씩 사상 교육을 위한 학습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로써 오후 8시가 훨씬 지나서야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난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 월별에도 개인 시간을 가지기란 무척 힘들다. 월~목요일에는

'8시간 노동 시간은 침범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 이후 수시로 사상 학습, 소속 단체 회의 행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의 개인 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요일에는 금요일 노력 동원에, 토요일에는 종일 생활 총화(자아 비판)와 사상 학습 강연회, 영화 문헌 학습(김 부자 찬양을 주제로 한 기록 영화·예술 영화) 등에 참가해야 한다. 이 외에도 퇴근해서는 동 인민반에서 실시하는 각종 노력 동원과 모임에도 참가해야 한다.

(2) 언제 휴일이나 휴가를 가질까?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에 따라 휴일이 다르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휴일이 다르다. 이는 전력 사정이 어려워 돌아가면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인데, 생산직 노동자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날에 쉬도록 배정된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 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 부족,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휴가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정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이후 대부분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여 결근이 잦고, 배급이 중단되어 개인적으로 식량을 구하고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직장 상사에게 뇌물을 주고, 장사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 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다.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종의 유인 제도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도 민족 고유의 명절이나 북한 당국이 정한 국경일에는 공식적으로 휴일을 즐기고 있다.

(3) 북한 사람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할까? 휴대폰은 있을까?

현재 북한에는 110만여 회선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전화 보급률이 낮다. 그것도 공공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용 전화는 10% 정도에 불과하여 집집마다 전화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화가 있는 집은 대개 한 동네의 고위 당·정 간부집이라고 한다.



북한의 공중전화

공중전화는 평양이나 청진 등 대도시 지역에는 시내 주요 거리와 백화점,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다. 시·군 지역에는 우리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체신소에 2~3대씩 가설되어 있으며, 군 단위 이하 리·동 지역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기관이나 기업소를 찾아가 비치된 대장에 용건을 기재하고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공중전화 기종은 다이얼 자동식과 수동식 두 종류가 있는데, 평양은 자동식이나 기타 지역은 전화 교환원이 상대방을 연결해 주어야 통화할 수 있는 수동식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통신 케이블이 노후하여 감도가 불량하고 잡음이 들리는 등 통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평양에는 전화기가 대부분 다이얼식이지만 최근 버튼식 전화기가 상당히 보급되어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는 우리처럼 카드식은 없으며, 특이한 것은 공중전화소에는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하는 '반환 버튼'은 '돈 나오게 하는 누르개'라고 써 있다.

전화가 많지 않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전보를 치며, 전화를 꼭 써야 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만 전화

있는 가정이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장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다.

북한에 이동 전화 회선이 500회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진·선봉 경제 특구에만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 북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북한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평양의 대중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무궤도 전차가 주를 이룬다. 승용차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대규모 국제 행사의 개최에 따라 택시가 도시 교통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그 수는 600~700대 정도에 이른다고 하며, 여성 택시 운전사도 있다고 한다. 이나마도 주로 외국인을 대

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본 요금은 6원이며, 1km 당 1원씩 추가된다. 그리고 야간에는 심야 할증이 되어 2원씩 올라간다.

북한의 대중교통 중에서 평양의 지하철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지하 궁전'이라 부른다. 현재까지 2개의 노선이 있으며 총 34km(남북노선 14km, 동서노선 20km)이다. 그리고 지하 100~150m에 건설되어 전쟁 등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역의 지하 승강장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철 내부는 대단히 화려하며, 승차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회 편도 이용에 2원이다.

궤도 전차는 만경대에서 사동 구역 송신 주차장에 이르는 제1 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이 더 있다. 버스는 시내 변두리에서 인근 교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1989년부터는 대동강에 여객선이 오고 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출퇴근 및 여행객 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평양과 남포를 오가는 영광호와 평양 1호 등의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다.



평양 지하철

그 밖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 갈 때에

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 간격을 잘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니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는 유류가 부족하여 '목탄차' 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이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차가 적어 교통 체증은 없지만 우리와는 또 다른 교통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대중 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평양 시민들도 교통 지옥을 겪는다고 한다.

(5) 북한의 사회 질서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양립할 수 있을까?

북한은 인권 보장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째 지속된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평등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소원 및 탄원)와 청원의 권리, 노동과 휴식의 권리, 무상 치

료와 교육의 권리, 문학과 예술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남녀 평등, 결혼과 가정의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헌법과 북한 당국이 1999년 12월 25일 유엔 인권 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제2차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은 높은 수준의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 북한은 헌법적 규정과는 달리 공개 처형과 강제 수용 등 공포 정치를 통하여 고도의 조직화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 라고 부를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인권 실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난,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사회 이탈 행위가 증가되자 북한은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사범에게도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거주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언론 출판의 자유 억압, 장애인에 대한 이주 및 집단 관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약, 여성 차별로 인한 여성의 권리 침해, 성분에 따른 의료 체계의 차등적 적용과 채용 부족, 직업 선택 및 이동의 통제, 열악한 교육 복지 체제 등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제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다만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갈 뿐이다.



생각해 보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은 왜 중요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어떠한가?

6.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대체로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다원주의 사회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개방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다원주의를 기초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문화 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북한은 주체 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 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문화는 대체로 당 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김정일의 문예 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운영하고 있는 부서로 조선 노동당 선전 선동부와 내각의 문화성이 있다.

국가가 문화 예술 분야에 개입하는 수준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는 문화관광부가 문화 예술 활동을 총괄하고 공연 윤리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사회와의 관련성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예술이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 관계가 성립되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 활동을 여가 활동의 일종으로 인식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 생활인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문화생활은 어떨까?

(1) 북한도 우리와 같은 명절을 보낼까?



명절 때 윷놀이를 즐기는 모습

북한에서 명절은 우리나라처럼 전통 민속 명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명절이란 민속 명절 외에 국가 경축일, 국제 기념일까지를 통틀어서 말한다. 그리고 설, 단오, 추석 등은 따로 '민속 명절'이라고 부른다.

북한에서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생일날이다. 북한은 이 날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임을 부각하기 위해 연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 위원장 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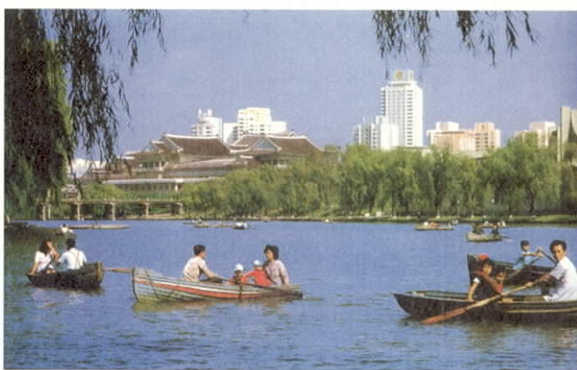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4대 명절인 설날,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부활되었다. 민속 명절을 부활한 것은 이산가족 찾기 사업, 해외 동포들의 방문, 1980년대 말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의 우월성’ 등의 선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쉬면 ‘대휴’라 하여 내각이 고시한 그 전후의 일요일에 빠졌던 노동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완전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반쪽 휴일’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그냥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양력설과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 창건일, 당 창건 기념일 등을 5대 명절로 간주하며, 특별 배급을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보내는 고유의 민속 명절보다 특별 배급이 나오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때를 오히려 더 기다린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 설날 같은 민속 명절 때면 성묘를 가는데, 다만 우리처럼 많은 음

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고, 형편에 따라 별초를 하며 성묘를 한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여기저기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 우리처럼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민족의 대이동'은 없다.

(2) 여기는 어떤 식으로 보낼까?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 역시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되어 있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 봉사, 군사 훈련, 사회 정치 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여가를 제대로 가지기 어려우며, 설령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여가를 즐기는 평양 주민들

취미나 오락 시설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공휴일에 주변의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이 주된 휴식이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 주민들은 휴일에 만경대 유희장, 문수 유희장 등 오락 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 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이용이 쉽지 않다. 또한 일부 신세대들은 디스코, 포커 등 자본주의적 놀이 문화로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 경우에는 직장이나 지역 단위마다 세워져 있는 문화 회관의 체육 및 오락 시설을 이용하여 여가 활동을 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보통 많이 즐기는 여가 수단은 집단적으로 관람하는 영화 감상이다.

영화 감상은 사상 교양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은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어서 영화 보기를 즐긴다고 한다. 영화 관람 후에는 보통 '영화 감상 모임'이라는 토론회 형식의 집회도 이어진다. 영화의 내용이 나 등장인물로부터 본받거나 비판해야 할 점 등을 해설하고, 몇몇 토론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한 후 영화로부터 얻은 교훈을 사업과 생활에 그대로 반영하자는 결의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치 선전이나 혁명성이 짙은 영화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주민들의 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신상옥 감독이 제작한 '사랑 사랑 내사랑'이나 '길' 등의 작품이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일요일에 만수대 TV에서 방영하는 외국 영화의 시청률도 매우 높다고 한다.

그 밖에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여가 수단으로는 장기 등이 있으며, 가끔 야외에 나가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만이 즐길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여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볼링장, 골프장, 노래방 같은 것도 있다.

(3) 북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 농구, 마라톤, 탁구 등이며, 그 외에는 배구와 권투 등이 인기가 높다.

축구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 지시로 전 지역의 시·군 체육 구락부 내에 축구팀이 신설됨으로써 활성화되었고, 각종 국내 대회의 개최와 TV 중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

남자 축구단은 실력에 따라 1~3급 체육단으로 분류되어 선수들은 '공화국선수권 대회' (매년 9월~10월 중 개최)의 평가를 통해 차상급 체육단으로 발탁된다. 여자 축

구팀은 현재 일반·대학팀 20여 개와 고
등중학교팀 5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은 편이다.

농구는 국가 정책에 의해 “농구를 많이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키가 커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지며 운동량에도 좋다.”
는 이유로 권장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키가 235cm인 리명훈이 등장하면서 그
인기도가 높아졌다. 특히 단일 종목 대회
로는 흔하지 않게 ‘8.28 청년컵 쟁탈 농
구 경기 대회’를 신설(1997.8)하는 등 농
구의 육성·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
며, 이에 따라 농구 수준 또한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높아졌다.

마라톤은 북한 주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
적을 올리고 있는 종목의 하나로서 국가적으로 장려되었으며 뛰어난 선수도 많이 배
출되었다. 특히 정성옥 선수가 1999년 8월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여성 부문에서 우승함으로써 인기 종목으로 부상하였다.

탁구는 전 지역에 걸쳐 조직되어 있는 수백 개의 탁구 구락부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
되어 있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특
히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남북한 단일팀을 결성하여 1991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
된 ‘제41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등 축구와 더불어 남
북한 체육 교류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구하는 모습

(4) 북한 사람들이 우리의 대중가요를 부른다는데?

북한 주민들 사이에 우리의 대중가요가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방문자나 북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의 대중가요는 해외 동포, 특히 중국의 연변 동포, 일본에서 온 북송 교포 그리고 KBS 라디오의 사회 교육 방송을 통해 북한 사회에 전파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우리의 대중가요로는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당신은 모르실거야', '사랑의 미로' 등이며, 이 외에도 분단 이전에 유행했던 '황성 옛터', '봉선화' 등이 있다. 이러한 노래들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 등 고위층들도 연회석 상에서 가끔 부르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특히 흘러간 노래 한두 곡은 잘 부를 정도로 우리의 노래가 북한에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는 우리의 대중가요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히 부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은밀히 불려지고 있으며, 곡은 그대로 살리고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도 많다. 대다수 주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중국 조선족의 노래(일명 연변 가요) 정도로 알고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 중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대중가요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북한에 살 때 우리 신세대 가수들의 랩도 일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비교적 자주 본다는데,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 왜 영화 감상이 많은 것일까?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1.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2.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3. 과외 및 여가 생활은 어떠할까?
4.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Ⅲ.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

1.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1) 북한의 학제도 우리처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을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데,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 4~6년으로 초등 교육 기간이 우리보다 2년이 짧다. 여기에 유치원 높은 반 1년의 의무 교육 기간을 포함하면 (1)-4-6-4(6)제라고 할 수 있다.

중등 교육 과정을 우리는 전기 중등 교육 3년과 후기 중등 교육 3년으로 구분하는데 반해, 북한은 이러한 구분이 없다. 과거에는 고등중학교를 중등반 4년과 고등반 2년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고등중학교 6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는 우리의 농업·공업·상업 학교 같은 실업 고등학교가 없다.

북한에서 기술 교육은 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 기술자 양성 기관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진다. 직업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을 일찍부터 차별하여 노동자로 만들고 천대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직업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은 북한의 학제로 따지면 어디에 속할까? 만일 유치원 높은반 1년 과정을 처



고등중학생의 등교장면

주면, 고등중학교 5학년이 된다.

(2)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도 우리처럼 국어, 역사, 한문,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정치 사상 과목이 있다.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 활동', '공산주의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 년					
		1	2	3	4	5	6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 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				2	2	2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혁명 활동	1	1	1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2	2	2
5	공산주의 혁명 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 력사				1		
6	현행 당 정책				1주	1주	1주
7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	1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20	미술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주 : 북한 교육성의 1996년 과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도덕' 등의 제목을 가진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남녀 공학이기 때문에 여 학생에게는 여학생 실습 과목이, 남학생에게는 공작 실습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

(3) 북한에도 우리의 특수 목적고와 같은 특수한 학교가 있을까?

북한도 우리처럼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해서 각 도에 특수 학교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의 특수 목적고와 유사한 면도 있다. 인민학교 졸업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제1 고등중학교, 혁명 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 교육을 위한 만경대 혁명 학원, 강반석 혁명 학원 등이 있다. 무용·음악·조형 예술·교예 등 특기자들을 위한 예체능 전문 학교도 있으며, 외국어를 중점 교육하도록 외국어 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각 도(직할시)·시·군·구역까지 설립되어 있는 제1 고등중학교는 정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1984년 9월 평양 제1 고등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현재 200여 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영재를 배양하는 기지'가 되고 있다. 제1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김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일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만경대 혁명 학원은 1947년 10월 12일 인민 무력부 산하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인민학교 졸업 후 입학할 수 있다. 혁명 유가족 및 당·정 고위 간부의 자녀들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사관학교식 교육을 받는다. 이 학원 학생들은 졸업 후 각급 군사 학교에 입학하여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이 학교 외에 6·25 전쟁 희생 장병의 유자녀들을 위한 강반석 혁명 유자녀 학원, 해주 혁명 유자녀 학원 등이 있다.

북한에서 예술·체육 등의 예·체능계 학교는 11년제의 음악 학교, 무용 학교, 조형 예술 학교 등과 4년제 체육 학교, 공예 학교 등이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조기 교육을 시키는 학교들로서 학생들은 엄밀한 신원 조사 이후 선발된다. 그러나 핵

심 계층 자녀가 아니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 외국어 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 학원도 고등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4) 북한의 학생들은 어떤 선택과목을 배울까?

북한은 지금까지 도시, 농촌, 어촌 등에 관계없이 전국 고등중학교에서 똑 같은 과목을 통일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북한은 2001년 4월 1일부터 전국 고등중학교에 '선택 과목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2001년부터 선택 과목 교육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교육을, 어촌 지역에서는 수산업 관련 교육을, 산간 지역에서는 임업 관련 교육을, 경공업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경공업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일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선택 과목 교육은 학생들을 쓸모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선택 과목 교육은 "나라의 교육 사업을 새 세기, 새 환경에 맞게 더욱 개선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택 과목 교육 실시를 앞두고 수십 개 학교에서 전국적인 선택 과목 교수 방식 상학(시범 교육)이 진행됐으며, 지역·지대별 특성에 맞는 과목을 올바르게 설정해 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약전, 식료, 의류, 기계, 농업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교육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고등중학교에서는 실습 기재·실험 기구 등을 갖춘 실험실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5) 우리처럼 영어를 중요시할까?

북한 당국은 국제 무대에서 영어권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러시아 어와 영어 병행 교육에서 영어 위주로 전환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각 학교의 러시아 어반을 폐지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영어 교육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들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목으로 영어 과목을 지정하는 등 영어 조기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평양 외국어 학원과 각 도 외국어 학원은 고등중학교 1~6학년 과정으로 외국어 조기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 평양 외국어 학원은 영어, 러시아 어, 독일어, 불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생이 가장 많은 부문은 단연 영어다. 이 학원은 현재 각 학년별로 20명 안팎으로 이뤄진 5개 학급의 영어반을 두고 있으며, 영어 수업 비율은 전 교과목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어를 배우려는 지방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일반 고등중학교 4학년 학생 가운데서 시험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외국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이 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김일성 종합 대학이나 평양 외국어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평양 및 각 도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면 추천을 받아 김일성 종합 대학 외국어 문학부, 외국어 대학, 국제 관계 대학, 압록강 대학, 각 도 사범 대학 외국어 학부 등에 시험을 치루어 입학한다.

외국어 학원이나 대학의 영어 전문 교육은 보통 회화, 청취, 받아쓰기, 강독, 문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주일에 한 차례씩 원어로 된 미국·영국 영화를 관람하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생각해 보기

세계의 청소년들과 달리 북한 청소년들만이 배우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1)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까?

북한에서 보통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이다. 주변은 이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한다.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벌칙으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청소를 시키기도 한다.

8시에 수업을 시작하여 오전에 5~6교시까지 수업을 한다. 우리처럼 매 수업 시간 이후 쉬는 시간은 10분이며, 2~3교시 후에는 '수업 간 체조'라 하여 체조 시간이 30분 있고, 오전 수업이 끝나면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거나 집이 가까운 학생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3시에 오후 수업을 시작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는 오후 4~5시 이후에는 담임 교원의 지도하에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하는 일일 또는 주간 생활 총화 시간을 갖는다. 생활 총화 시간 이후에는 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단이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 작성한 월별·주별·일별 사업 계획서에 따라 당정책 계몽 선전 활동, 학교 주변 청소와 같은 보건 위생 활동, 그리고 고철 수집 등 외화 벌이를 위한 근로 봉사에 동원되고 사상 교양을 위한 영화나 시 감상 모임 등에 참석하게 된다. 보통 저녁 5시가 되어야 이러한 활동이 모두 끝나 집으로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며, 집안 청소, 빨감마련 등 크고 작은 집안일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할 여유

가 별로 없다.

청소년들의 TV 시청은 TV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TV가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 청소년들은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하는 아동 만화 영화를 즐겨본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저녁 시간에 자녀들의 숙제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중학교 일별 학교 운영 계획 및 일정〉

오 전	7:30	등교
	7:30 - 7:50	정돈 및 독보
	7:50 - 8:00	교양 시간(담임)
	8:00 - 8:45	첫째 수업
	8:55 - 9:40	둘째 수업
	9:50 - 10:35	셋째 수업
	10:35 - 10:55	수업간 체조 시간 및 콩물 공급
	10:55 - 11:40	넷째 수업
	11:50 - 12:35	다섯째 수업
	12:45 - 1:30	여섯째 수업
오 후	1:30 - 3:00	점심 시간
	3:00 - 3:45	과외 체육
	3:45 - 3:55	휴식
	3:55 - 4:40	과외 복습
	4:40 - 5:00	총화

(2) 개학과 방학은 언제일까?

예전에 북한의 연간 학사 일정은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여 이듬해 8월에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4월을 신학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가 모두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당 수업·시

수가 감소(36-36-36-32-29-25주)하고, 실습·노동·조직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

〈북한의 연간 학사 일정〉

학 기	월	학 사 일 정
상(반)학기	4	상학기 수업
	5	
	6	여름 방학(7월 하순-8월)
	7	
	8	
하(반)학기	9	하학기 수업(9월 초-12월 말)
	10	
	11	겨울 방학 (고등중학교 1-3학년 : 1월 초부터 2월 중순 고등중학교 4-6학년 : 1월 한 달간)
	12	
	1	하학기 수업 계속 (겨울 방학 후-3월 마지막 전주) 봄 방학(3월 마지막 주를 전후하여 약 10일간)
	2	
	3	

〈고등중학교의 학년별 시간 배정부표〉

학 년	수업 주수	시험 주수	현행 당 정책 수업 주수	실습 주수	견학 주수	붉은 청년 근위대 훈련 주수	생산 노동 일수	견학 주수
1	36	2					30	53
2	36	2					30	53
3	36	2					30	53
4	32	3	1				45	53
5	29	3	1	2	1	(1)	45	53
6	25	3	1	3	(1)	1	60	53
계	194	15	3	5	1	1	240	298

(3) 시험은 어떻게 치를까? 유급이나 퇴학이 있을까?

북한의 학생들은 우리보다 시험을 적게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과정에 의해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을 일정 주기마다 시험을 치러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어 교육 과정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은 반드시 시험을 통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



수업광경

그러나 북한에서의 학력 평가는 학기말 시험, 연말 시험 및 1년에 2~3회에 실시되는 부정기 시험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각 시험은 주관식으로 '무엇에 대하여 논하라.'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 교과목은 낙제를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일반 학과 성적에는 관대한 편이나 '혁명 력사', 김일성·김정일 문헌 학습 등 사상 학습과 관련된 과목은 낙제 시 엄중한 자아비판을 받는다.

또한 북한에서는 교육성 주관으로 각 학교별 차이를 점검하는 '총평'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있으며 시·도 인민 위원회 교육국 등에서 학교별 비교를 위한 시험(학과 경연)을 실시하기도 한다. 학과 경연은 보통 3개월마다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 '소조'를 조직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 성적에 대한 종합 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시험을 포함하여 학과 토론, 실험 실습, 학과 논문, 사회 정치 활동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북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적부에 학력 점수와 생활 점수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학력 점수는 5(최우등: 시험 문제·시험관 보충 질문 모두 답변), 4(우등: 시험 문제 모두 답변, 그러나 시험관의 보충 질문 답변 못함), 3(보통: 시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답변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완전히 답변), 2~1(낙제: 시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도 답변하지 못하거나, 시험 문제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답변 못함)의 5단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 점수는 '모범/락후'의 2단계로 기록한다.

한편 유급은 인민학교의 경우 국어, 산수 성적이 3점(보통) 미만이면 특별 과제를 주어 다음 학년 초에 재검하여 결정한다. 고등중학교는 3점 미만의 과목이 3과목 이상이면 유급당하게 되어 있다. 유급은 두 번까지 가능하며 세 번 이상일 경우 퇴학당한다.

(4) 북한에도 야간 자율 학습이 있을까?

북한에서도 시험 때가 되면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저녁 늦게까지 집체 학습을 한다. 45분짜리 수업 5교시가 끝나면 보통 오후 1시경이 된다. 그 이후 또는 6교시 수업이 끝난 후 싸 가지고 간 광밥(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 집체 학습을 한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부르며, 집에 딱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게만 조퇴를 허락해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한다.

선생님도 교실 문턱에 앉아 문을 지키며 자기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아다니며 공부를 도와주기도 한다. 45분이 지나면 다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집체 학습이 계속되는데, 저녁 6시나 7시까지가 보통이고 시험이 임박하면 밤 10시~12시까지 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도 풀고 외우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도 하며 다른 소설책을 보거나 잠담하는 일도 많다.

집체 학습에는 이렇게 무작정 잡아 두는 방법 외에 일정한 문제와 시간, 공부량을

정해 주고 그때그때 시험을 보아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담임선생이나 전공 과목 담당 교사가 시험 문제 내용을 한 문제씩 차례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우리와 같은 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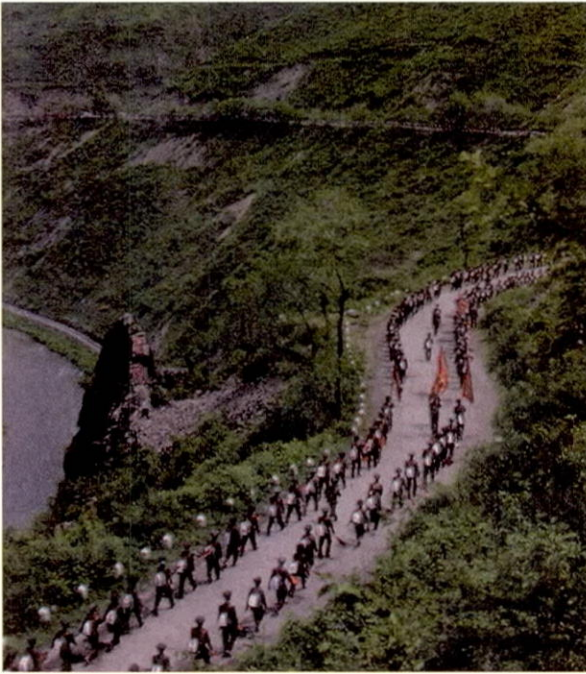
3. 과외 및 여가 생활은 어떠할까?

(1) 북한 청소년들은 과외 활동을 어떻게 하나?

과외 활동에 대한 개념은 남과 북이 같지 않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과외 활동이란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고, 사회 활동은 그 다음 문제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과외 활동은 혁명 인재의 양성과 노력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과외 활동의 내용도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은 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 입단하여 모두 조직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소년단은 인민학교 2학년부터 고등중학교 4학년까지(7세-13세)의 학생들이 가입하며, 주로 정치 사상 교양, 생산 노동, 생활 총화 등에 참여한다. 생산 노동으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토끼 기르기, 파리 잡기, 소년단립 가꾸기, 각종 폐품 수집 등을 한다.

고등중학교 5학년부(14세) 가입하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의 활동은 공산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정치 사상 학습, 노력



사로청활동

동원, 생활 총화 등에 참여하여 정치 학습을 받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참여한다.

과외 활동도 요일과 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상 학습, 화요일은 과외 체육, 수요일은 소조 활동, 목요일은 소년단·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활동, 금요일은 대청소, 토요일은 주 생활 총화와 같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외 활동이 모두 집단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에서는 혁명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고 김일성 일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혁명 사적지와 전적지를 찾아 답사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사적지가 있는 백두산에 답사를 가는데, 항일 유격대식으로 행군을 하며 이런 혁명 유적지 답사 행군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2) 북한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할까? 오락 게임도 있을까?

북한의 컴퓨터 보급 실태는 그리 높지 않다. 우선 광케이블망 자체가 전국 60여개 시·도·군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 생산 자체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 보급도 주요 국가 기

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다룬다는 것은 극히 제한된 고위 간부 자제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지시로 각 시·도에서 제일가는 제1 고등중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컴퓨터 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접할 수는 있다고 한다.



컴퓨터 학습 장면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은 부진한 실정이지만, 평양 이과 대학, 김일성 종합 대학, 평양·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 등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으며, 평양 정보 센터나 조선 컴퓨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이 가장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인식 시스템 관련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남북 정상 회담 기간에 북한의 조선 컴퓨터 센터에서 마이크로 말을 하면 정확히 글자가 모니터에 입력되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선보여 우리측 방문객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으며, 바둑 프로그램은 세계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하기도 하였다.

오락 게임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 과학원 수학 연구소가 개발한 '청개구리' 시리즈와 '드래곤'인데, '드래곤'은 울타리 안을 달리고 있는 공룡을 쏘아 잡는 게임이라고 한다. 이 밖에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 가능한 많은 게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한다.

(3) 북한 연예인들은 팬클럽을 갖고 있을까?

북한에서는 연예인을 '대중 예술인'이라 부른다. 우리처럼 북한에서도 유명 대중

예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주민들과 다른 대우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극영화 '꽃 피는 처녀'에서 주인공 꽃분이 역을 맡았던 홍영희나, 영화 '도라지꽃'의 주연을 맡았던 오미란은 둘 다 인민 배우 칭호를 얻은 인기 스타이다. 오미란은 북한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있는 시리즈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도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다. 남자 배우로는 역시 '민족과 운명'에서 박정희 역을 맡았던 김윤희, '림격정'의 주인공이었던 최창수 등이 인기 배우이다.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일부 가수들은 극장이나 문화 회관 등에서 독창회를 갖기도 하는데 이것은 남한의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와는 다르며 그것도 매우 드물다. 북한에서 인기 있는 대중 가수로는 '휘파람'을 부른 전혜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자 음악단이 생겨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컨대 보천보 전자 악단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신시사이저와 같은 전자 악기 뿐만아니라 전통 악기도 혼용하고 있으며, 성악이나 무용 분야의 전속 배우와 합창단도 두고 있다. 히트곡 '휘파람'도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창작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열성적인 '오빠 부대'는 없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고 표출하는 마음은 같다고 한다. 하나의 예로 예술 잡지나 화보에 실린 전혜영이나 오미란의 사진은 어김없이 오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오려진 사진은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하거나 기숙사 방 벽면에 붙여진다. 북한에도 팬레터가 있다고 한다. 팬레터를 그들은 '성과 편지'라고 하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신세대들은 인기 스타들에게 공연 축하 성과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성과 편지를 가장 많이 받은 스타로는 역시 북한 최고의 연예인이라는 찬사를 듣는 영화배우 오미란인데,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은 것 같다.

(4) 노래방은 있을까?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청소년 전용의 노래방이 있다고 한다. '화면 반주 음악실'로 불리는 노래방이 평양에 처음 설치된 것은 1990년대 초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평양 청년 중앙 회관에 250석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 노래방은 청년 중앙 회관 대중 정치 교양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곳을 주로 찾는 이는 근로 청년,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 등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은 많지 않는 편이다.

이 노래방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보천보 전자 악단이 취입한 수 십 곡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게 음정과 박자, 음색을 자유롭게 조절한 후 노래를 부르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추어 이중창을 하기도 한다.

또한 노래 반주를 화면과 함께 보내는 조정실이 따로 있어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번호를 누르면 조정실에서 반주와 영상을 내보낸다. 가사는 화면 하단에 푸른색 글자로 나타난다. 특히 노래하는 사람의 박자나 음정이 틀리게 되면 전문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와 이를 바로잡아 주고 다시 사라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무대 조명은 물론이고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다. 물론 우리처럼 30~40평 규모의 대중적인 노래방은 호텔 등 특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5) 북한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만화 영화는?

북한 역시 우리처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도 만화 영화를 대단히 좋아한다. 그것은 대부분 영화들이 김일성·김정일을 미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 주류지만, 만화 영화는 주로 전래 동화나 우리의 역사나 동물들을 주제로 교훈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영리한 너구리'의 한 장면〉

우리나라에서는 만화 영화를 컴퓨터 합성 등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북한의 경우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수 백 명의 만화가들이 손으로 그린 다음 그것을 합쳐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화 영화들은 컴퓨터로 합성한 영상물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어 북한 사람들은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고 한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소년 장수'와 '영리한 너구리'이다.

'소년 장수'는 1부에 약 25~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오랑캐가 침입해 온 시기에 15세의 소년이 무술과 재주를 익혀 임금이 인정하는 장수가 되어 오랑캐와 싸워 물리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것이 주제이다.

'영리한 너구리'는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짧은 너구리가 주인공인데, 생김새는 웃기지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너구리는 토끼와 높은 막대기의 높이를 재어 오는 경기를 하는데, 토끼가 줄자를 가지고 그 높은 막대기에 기어오르는 것을 한심하게 비웃고는 삼각자와 콤팩스, 그리고 직선자를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높은 곳까지 오르지 않고도 먼저 높이를 재어 돌아옴으로써 경기에서 이긴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만화 영화는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써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 주고 있는데, 동물을 캐릭터로 한 북한의 만화는 이러한 교양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밖에 북한 사람들은 외국의 만화 영화도 즐겨 보고 있다. 평양 사람들과 외국인들

만 시청할 수 있는 만수대 텔레비전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외국 영화와 함께 외국 만화 영화도 방영하는데, 이 코너에서 디즈니 만화인 '톰과 제리'가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6) 북한 청소년 문화도 서구식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

1980년대 이후, 특히 1989년 평양에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개최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는 서구식 문화가 침투되기 시작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긴 하지만 북한 청소년 문화 속에는 서구식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서구형 생활양식을 따르려는 것은 복장, 머리 모양 등 외형적으로도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특별한 정치 집회나 노동 현장에서는 인민복을 입지만 평상시에는 양복과 양장 차림을 하기도 한다. 1990년대 초에는 청바지와 치마바지, 풍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는데, 1993년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착용을 금지시킨 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청바지는 미 제국주의, 치마바지는 일제가 만든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금지하고 있다. 실제 생활에서는 대부분 활동하기 간편한 바지 차림을 주로 하며 한복은 특별한 행사 때 입는다. 그리고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장발 등 특이한 머리 모양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목격되고 있으며, 중국의 보따리상이나 재일 교포 등을 통해 유입된 우리나라나 서구의 가요 테이프, CD, 비디오 등도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서구형 자본주의 문화가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침투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이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 빠진 부르조아적 유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상 교양 캄빠니아(캠페인)'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생각해 보기

우리가 북한에 가서 청바지에 외국어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랩을 흥얼거리면서 여가를 즐긴다면 북한 학생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4. 북한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란, 어릴 때는 잘못된 것을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 공부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 교사가 자신을 밑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교사가 때리는 것에 대한 불안 등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그들이 조직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래가 자신의 희망이나 능력보다는 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탄광이나 제철소 등에 배치될 것인가, 진학할 것인가, 군에 입대할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장래에 좋은 곳으로 배치받기 위해 애쓰는 데, 이를 부모가 더 걱정한다. 이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뇌물 공세를 취하기도 한다. 그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무역 일꾼, 사업 일꾼, 연예인, 외교관, 관광 안내원 등이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우리처럼 고민하는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중학교 과정 중에 입시에 대해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주로 출신 성분에 따라 대학 진학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성적에 관심을 갖는 주요 이유는 성적이 나쁠 때 교사가 때린다거나 여학생 보기가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경

우도 많다. 나머지 학생들은 진학을 아예 포기한 상태이므로 운동을 하거나 놀거나 장난을 치며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수능시험이 있을까? 속칭 일류 대학은?

북한 학생들은 고등중학교까지는 경쟁 없이 자동적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입학은 사정이 다르다. 대학은 아무나 입학하게 되어 있지 않고 당·정 간부 자제, 당원 자제, 혁명 유자녀, 인민군 출신, 특별히 성적이 좋고 재능이 있어 뽑힌 학생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생



〈김일성 종합 대학〉

들만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우리보다 경쟁률이 높은 대학도 있다.

내각 관할로 고등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봄에 시험을 치르며 각 시·도·군 단위로 등수가 발표된다. 일종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셈이다. 이 성적을 기초로 내각 교육성에서 시·도·군 단위로 각 대학에 몇몇씩 배정하고, 수험생들은 배정받은 대학에 가서 다시 본고사를 치른다.

시험 과목은 혁명력사를 비롯한 수학, 물리, 외국어, 신체검사 등이다.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은 최종적으로 면접을 치른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자를 '직통생' 이라고 하는데, 전체 합격자의 30% 정도이며 나머지 70%는 통상적으로 제대 군인이거나 직장 소속자이다. 그래서 북한의 대학생들은 우리 대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다.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김일성 종합 대학, 자연 과학 분야에서는 평양 이과 대학, 공과 부문은 김책 공업 대학, 어학 계통은 평양 외국어 대학 등이 꼽히고 있다.

일류 대학이라면 단연코 김일성 종합 대학, 김책 공업 대학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 현재 북한의 당·정 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의 70% 이상이 이 대학 출신들이다. 이들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출신 성분이며 재학생 1만 2천 명 가운데 중앙과 지방 당·정·군 중견 간부 이상의 특권층 자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북한 청소년들도 이성 교제를 하고 있을까?

북한에서 청소년들 간의 이성 관계는 우리처럼 공개적으로 사귀게 되어 있지 않다. 북한 사회 자체가 이성 교제를 금기 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이성 관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 학교와는 달리 고등중학교 대부분은 남녀가 같은 반을 이루지 않는다. 특별한 곳이 있다면 일부 산골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은 경우이고, 남녀 공학이라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학생들과 이성 교제를 시도하는 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학생은 부모가 간부이고 권력이 있으며 학급에서 학생 간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

(3) 친구를 따돌리거나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북한에도 친구를 따돌리거나 잘난 척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 왕따나 공주병의 대상은 우리처럼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 간에 많다고 한

다. 그러나 우리처럼 오래가지 않고 금방 친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교사들이 특별히 좋아하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따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따돌림을 당하면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한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경우 우울증과 같은 것을 겪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도 않으며, 우리처럼 자살 같은 행위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해 보기

북한 학생들은 무슨 문제로 고민할까?



IV



하나됨을 위하여

1.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2.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IV. 하나됨을 위하여

1. 통일된 사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1) 다름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같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회

북한 사회는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집단주의 사상을 고취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을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지향하는 삶과 동의어로 여겼으며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비해 그동안 남한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사상에 기울어져, 사회 체제는 개인의 자율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경쟁 체제가 되었다.

남북한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규범의 차이는 이상적 인간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공동체 삶에 요구되는 덕목인 협동·순종·겸손·이타·인내·절제·화목·충성과 같은 심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즉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자기 수양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간주했다. 한편 남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덕목인 개성·창의·합리·능률·자율·공정·책임·독립과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 즉 개성이 뚜렷하고 창의적이고 자기 실현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키려면 구성원들이 상대방의 다름을 배타적으로 보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성을 조직화해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성 속에서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같음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며, 다름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같음

을 기뻐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아울러 상대방의 다름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나눔의 문화가 풍성한 사회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나 경쟁과 사적 소유 및 시장 원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생명력이 된다. 그러나 어떤 사회도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만 지탱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개인주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공동체 의식, 애타주의 정신, 협력과 나눔의 문화가 사회적 정서로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더불어 평등이 보장되고 높은 생산성과 함께 공정한 분배가 동시에 추구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 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삶을 일구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그동안 원자재 난, 외화 난, 에너지난, 식량난, 생필품 난 등의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해 왔다.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경제적인 역량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일 한국에서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업신여기거나 막연한 동정감으로 상대방으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금 더 가진 자가 기꺼이 사랑으로 물질과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나눔의 문화가 두루 통용되는 풍성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남한은 물질의 결핍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 물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의 나눔은 새로운 하나의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 화해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 나눔은 물질의 나눔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물질의 나눔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할 일이다.

(3) 인간 중심적인 시장 경제 체제

통일 한국의 경제 체제는 사유 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유 재산 제도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는 20세기 세계적 역사를 통해 경제의 고도 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도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배 과정에서 드러나는 취약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같은 기본적 경제 질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빈부 격차가 해소되고 일정한 수준에서의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된 인간 중심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적 발전 방향일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구성원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일 사회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4) 강한 국력을 지닌 사회

통일 국가의 형성은 단순히 남북한을 통합하는 의미를 넘어 해방 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반만년 민족 공동체와 갈라진 국토를 하나로 복원하기 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지금과는 다른 국가의 미래상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가 많아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상호 보완성을 이루는 산업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력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하는 활동 무대로 부상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국가의 위상이 새롭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통일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경제 통합은 단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GNP)은 일정 기간동안의 조정 기간을 거친 후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은 현재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교역 대국이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등이 결합된다면 민족의 경제 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나아가 증대된 국력을 토대로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의 '조정역' 내지 '균형자'로서의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5)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우리 모두가 통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통일이 민족적 측면에서나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격상된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 기회의 균등,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의 삶이다.

우리는 통일을 계기로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물질적으로 보다 풍요로와지고 도덕적으로도 보다 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비도덕적·비민주주의적 요소를 보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통일 한국 국민들의 행복하고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함께 사는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 공동체는 다원주의,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모두가 다른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정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기초로 풍요와 정의가 함께 구현되는 성숙된 복지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가 바로 통일 한국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기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2. 다른 분단국은 어떻게 통일을 준비했을까?

(1) 동·서독의 만남과 하나되기

제2차 세계 대전 이래 동·서독은 각기 미소 냉전 체제에 속해 있어 대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독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외교적으로 봉쇄한 채 “동독과 교류하는 국가와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동독과 민간 교류는 하되, 정부 차원에서의 관계 개선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동독 또한 바르샤바 조약 기구 국가들에게 “서독이 동독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서독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하며, 서독과 대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대립 관계를 종식시킨 것이 두 독일 최고 지도자 간에 이루어진 정상 회담이었다. 1970년 3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동독의 에르푸르트를 방문하



베를린 장벽을 깨는 독일 사람들

여 동독의 슈토프 각료 회의 의장과 정상 회담을 하면서 그 물꼬가 터졌던 것이다. 양독 정상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동·서독은 곧바로 두 달 후 제2차 정상 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합의함에 따라 1972년 12월 드디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우편, 통행, 통신, 방송·언론,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부문별로 다각적인 협정이 맺어져 양독 주민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동·서독 간의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는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 정책'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 이전에 서독은 경제적 우위로 동독을 압도해 나가는 소위 '자석 이론'에 기초한 대동독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변화였다. 1990년 통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 마음속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2) 중국·대만 간의 만남과 다가서기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가끔 대만 해협 앞바다에서 군사적 긴장이 일어날 정도로 정

치적 갈등이 심했다.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 과 대만 정부의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 인정 우선' 이라는 입장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연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경제 및 사회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다. 인민일보 보도 등에 의하면, 1988~99년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은 연인원 1,750만 명이고 공식·비공식 초청을 통해 대만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5만 명이며, 교류 항목은 5,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은 3통(통상, 통우, 통항)이 아직 공식적으로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미 실현되고 있는 상태이다. 직통 국제 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과 이삿짐도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선과 국적기를 제외한 선박과 여객기도 형식적으로 홍콩에 기착한 뒤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만인과 중국 본토인과의 결혼도 2만여 쌍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경제 교류는 대만이 무역 수지 흑자의 80%를 중국 시장에서 얻고, 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두 번째 역할을 대만 자본이 하고 있을 정도로 눈부시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미 홍콩, 마카오까지 합쳐 '중화 경제권'이 만들어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중국·대만의 만남과 다가서기는 우리의 통일 준비와 관련하여 아주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실용주의적 접근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사상이나 이념보다 서로 이익을 보는 입장에서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둘째, 중국과 대만 간 활발한 교류는 분단되어 있는 두 정부 간의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민족 통합의 계기로 작용하여 중국인의 역량을 보다 크게 하고 있다.

셋째, 체제가 서로 달라 필연적으로 정치·사상·군사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는 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영역이 필요한데,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완충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생각해 보기

예멘과 베트남의 통일 사례도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3.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1) 평화 만들기에 기초한 사실상의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데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는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즉 수세적 입장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만을 평화라고 생각해 왔다. 이것은 '평화 지키기' (peace keeping) 로서 소극적 차원의 안보 개념이다.

그러나 평화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강력한 평화 의지를 가지고 호전적인 상대방에게 평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며, 서로의 대결 관계를 상호 협력 및 상호 의존 관계로 바꿈으로써 평화 상태는 만들어진다. 이것을 곧 '평화 만들기' (peace making)라고 한다. 평화 만들기는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생존 전략 자체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차원의 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평화 만들기'는 '평화 지키기'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남북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일로 나가는 데 있어 평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활발히 하는 것'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란, 서로 두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오고 가며 교류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법이나 제도는 통일되지 않았지만, 생활 영역에서만은 분단된 두 지역 주민에게 분단이 아무런 불편함을 주지 않고 생활 공동체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 경제선은 있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적 측면에서 교류 협력이 활발하여 평화 공존이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서독은 20년 동안 이런 상태 속에서 통일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산가족이 만나거나 서로의 지역을 여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으며, 서로의 방송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다. 또 경제 교류도 활발하여 서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 이 때문에 법적·제도적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자마자 빠른 속도로 합쳐질 수 있었다. 통일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나마도 그 후유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북한은 50년 넘게 서로 적대와 불신 속에서 살아왔으며, 심지어 아직도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법적·제도적 통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독일의 교훈이 아니더라도 남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그 이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다지는 협력 관계의 구축과

평화 공존의 상태, 즉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다.

(2) 마음의 통일을 위하여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고 심지어 동독인 사람들의 개인 소득이 통일되기 이전 서독인들의 1/3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의 가슴에는 분단 장벽이 남아 있다고 한다.

서독 사람은 동독 사람을 '오씨' (Ossis, 동독 촌놈)라 부르고, 동독 사람은 서독 사람을 '베씨' (Wessis, 서독 줄부)라고 하며, 통일 당시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외쳤던 뜨거운 마음이 오히려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마음의 통합이 그만큼 어려움을 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모습

미하는 것이며, 통일 이전부터 마음의 통합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나라에 온 이후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질적 문화 의식 때문에 생긴 행동들을 우리가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참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남북한 간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자세이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분단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동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 속에서도 문화는 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남과 북은 반세기 동안 서로 이질적인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개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변국들의 협력과 뒷받침을 통일의 서까래로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이 결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소의 대립, 즉 냉전 체제의 출발이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물론 우리 민족 내부의 갈등도 남북분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그 분단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 그러나 분단 자체가 강대국들 간 정치 게임의 산물이기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민족 간 화해 못지 않게 주변국들을 우리 통일의 협력자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주변국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내 통일 국가의 등장을 저울질하고 있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경제적, 정치적 역학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통일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통일의 서까래라고 생각하여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변 국가들의 입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주변국가들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아니라 평화 지역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들의 이런 입장을 단순히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게 남북한의 통일이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통일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 분단은 세계화와 더불어 무한 경쟁으로 인해 지역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달리, 동북아 지역의 지역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이런 애로를 타개하고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4)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마음가짐과 자세

(가) 통일은 내가 만든다는 주인 정신을 갖자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맡아서 실천하자. 내가 하기 싫다고 타인에게 미룬다면 타인 또한 좋아할리 만무하다. 어려운 일도 해보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의욕적인 청소년이 되도록 하자.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는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성취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통일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통일에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통일을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차피 우리 민족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와 덕목을 계승하고, 서구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본받도록 하자. 다문화·다가치 사회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다 새롭고 참신한 생각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더불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롭고 건전한 청소년의 의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생각이야말로 남북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 기본적 사고의 틀이 된다. 통일 문제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 보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여 문제를 그릇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와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한다. 오만은 결코 겸손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여 청소년들은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은 경제력이나 국력이 앞선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남북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라) 국제 사회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 각국은 무관심한 것 같지만 세심하게 자국들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국은 자국의 실리적인 문제에 예민하며 냉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국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흐름에 뒤쳐진다면 결코 '세계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남북 문제는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북의 통일 문제는 분명 우리 문제이지만,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큰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마)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여 항상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받는 생활을 해 왔다. “내 자식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여서 키워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생각이다. 이러한 부모님의 배려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한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 사회에서처럼 많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하고 나눠 주고, 아껴 주는 모습 대신에, ‘내 것’, ‘남의 것’은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었고 타인을 공경하고 아껴 주는 따뜻한 인간미가 부족한 사회가 되었다.

남북이 통일을 위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지금 이대호가 더 좋다.”

“통일이 되면 못 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청소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아껴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청소년이 되도록 하자.

(바) 민주 시민의 질서를 습관화하자

기본 생활 습관이 충실한 사람은 학교나 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질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내가 먼저 질서를 지킨다면 우리 학교, 사회, 국가는 민주적인 사회 질서가 지켜지게 될 것이다. 버

스탈 때나, 식당, 각종 모임이나 회의 때 차례를 지켜 문화 선진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통일 한국의 선진 시민이 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자

우리가 하나된 민족 의식을 가지려면 '화해 의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한은 아직 서로를 하나의 동족으로 껴안으려는 의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주민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족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화해 의식을 가지고 한반도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심각한 식량난으로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1~2천원의 점심값을 아껴 북한 어린이들의 식량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나눔은 '물질의 나눔'으로 시작하지만, 저절로 '마음의 나눔'으로 연결된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도 어려운 계층이 많지만 북한에는 단순히 어려운 계층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우리들의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써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따뜻한 마음도 전달될 것이므로 결국에는 마음의 나눔으로 확산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 물질은 화해의 비둘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질의 나눔을 통해 북녘 땅의 청소년들과 마음의 나눔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아) 다름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 그리고 생활양식 등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할까? 또 우리와 낯선 것들, 예를 들면, 피부나 언어, 관습 등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은연 중에서 선진 외국인은 무조건적으로 동경하면서 다른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멸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따돌리는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은 종종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고, 이해가 안되는 친구들을 따돌리고 있다. 그리고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친구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은 이질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북녘 땅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함께 살기'를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생활을 실천해 나가자.



생각해 보기

통일이 되어 북한 학생이 우리 교실로 전학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반대로 내가 북한 교실로 전학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002년 9월 인쇄
2002년 9월 발행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142-7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020
Fax : 02)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Tel : 02) 2266-5277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

